

지역 매 아리

완주 관광시스템 합천 벤치마킹

완주 테마버스, 공정여행 등으로 관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완주군이 각광받고 있다.

25일 완주군은 경남 합천군이 완주군의 관광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완주군을 방문한 경남 합천군 관광진흥부서는 완주군 관광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사)마을통의 관광 활성화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완주군은 완주 테마버스 운영, 공정여행 사업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마케팅 홍보활동은 물론 완주군 관광종사원들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완주군 관광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완주군의 주요관광지 입장객 및 마을체험 방문객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기여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을 비롯해 새참수레, 지역경제순환센터, 경천호복마을, 소양대생한지마을, 소양오성한옥마을 등의 관광현장을 선진 답사하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야외활동 진드기 주의하세요”

완주군 보건소 SFTS 주의보... 긴 옷 착용·작업복 세탁 등 당부

완주군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관내에 발생, 사망함에 따라 야외활동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완주군 보건소는 SFTS는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으며 전체적인 치명률이 20%에 이르고 고령의 감염자에게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야외활동을 할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FTS는 숲에 사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열성질환으로 올해 전북에서 7명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주로 숲에 있는 풀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풀과 나무와 직접접촉을 피하고 야외 활동 시 긴소매, 긴 바지 장갑과 장화를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풀밭에 앉을 때에는 돛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야외 활동 후에는 작업복을 세탁하고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하며 만약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관찰되고 두통 등 고열,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즉시 방문해야 한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 13개 부읍면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전 직원의 출장을 통해 1인 1마을 홍보, 마을방송과 야생진

드기 예방수칙 전단지 배부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방역소독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공공방역이 어려운 주민들이 간단한 사용법과 약품사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대용 방역장비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11개소에 설치되어있는 에어건을 점검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지역 및 다중이용 시설에 해충유인퇴치기인 포충기 222대를 4월부터 가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체육회가 새로이 도입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점핑스포츠교실'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 점핑스포츠교실’ 호응

시체육회, 전문지도자 배치

김제시체육회(상임부회장 조승곤)가 새로이 도입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점핑스포츠교실'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새롭게 신설된 김제시 점핑스포츠교실은 김제시체육회 주관하여 점핑피트니스 국제강사 자격을 이수한 체육회 전문지도자를 배치 보다 새롭고 체계적이며 기능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3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존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뉴스포츠' 경험을 통해 생활체육활동의 즐거움이 배가되고 있으며, 타 유산소운동 종목들에 비해 시간대비 뛰어난 운동강도(약, 1000kcal / 1시간)를 통해 30분만 운동해도 온몸에 땀 범벅이 될 정도로 매우 효율적으로 유산소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핑스포츠 운동은 2001년 '체코'에서 가장 먼저 'Jumping Fitness' 본사가 창설되어 점핑운동 종목을 창시하였고, 현재 한국을 포함 전 세계 50개국에 보급되어 있으며 전세계인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또한 김제시체육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램폴린 기구는 체코 본사 자체 개발한 육각형 모양 트램폴린(PROFI TRAMPOLINE)으로 점핑스포츠의 가장 큰 요건 중 하나이며, 독일의 공인력 있는 인증기관에서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TUV SUD'를 받은 운동기구로 약 130kg정도까지의 체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 누구나 안전하게 점핑운동을 즐길 수 있다.

조수현 김제시체육회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김제시민의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위하여 신규프로그램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쌀적정생산 정부정책 추진 전국 1위

논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 노력

김제시는 농업분야 국정과제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과 수급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결과 목표면적 1,257ha 대비 164.8%(인 2,072ha(두류 1,978ha, 조사료 67.4ha(일반·꽃거름 26.6))를 달성했다.

이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쌀 적정생산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과 읍면동담당자 교육, 언론보도 및 농업인 홍보 134회

6,160명을 적극 홍보결과 이다.

또한 유관기관,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논 타작물 전환사업을 위해 1월부터 사전준비하고 생산 및 유통 판로 모색, 현장 기술지원 등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들과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쌀 적정생산 사업성과를 제고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17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농지에 '18년 벼 이외의 작물재배시 단위 면적당 조사료 40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

ha, 두류 2820만원/ha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제시는 지난 2년 동안 정부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정부 농업정책에 발맞춰 타작물 전환농가에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식량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전국 최초 2연속 농산산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상철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동참해 준 유관기관과 농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만경강 줄기 따라 역사·생태·문화 도보여행

완주 만경강 사랑지킴이, 동상 밤샘~김제 망해사 구간 걸어

완주군 평생학습 동아리인 '만경강 사랑지킴이(대표 이호연)'가 만경강 줄기 따라 진행한 도보여행을 마무리했다.

25일 만경강 사랑지킴이에 따르면 이번 도보여행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으며 '만경강 역사·문화·생태 도보여행' 주제로 진행됐다.

도보여행은 만경강의 발원지인 동상면 밤샘부터 새만금 바다와 만나

는 김제시 망해사까지 총 87km 20리 중 방타마을부터 대아저수지까지 약 22km를 제외한 65km구간을 16명의 참가자가 걸었다.

도보여행을 기획한 이호연(73세) 대표는 "2박3일 동안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야 진짜 만경강을 사랑하는 지킴이가 된 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보여행에 참여한 김인선(47세)씨

는 "만경강 87km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길이다"며 "이 아름다운 길이 잘 보전돼 우리 아이들도 이 길을 걷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경강 사랑지킴이는 전라북도의 젓줄인 만경강을 따라 걸으며 만경강 주변의 역사·문화·생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해 지역 주민과 함께 만경강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제8대 김제시의회의 의회 의정설명회 개최

김제시의회의는 25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시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 설명회를 열었다.

의정 설명회는 의회사무국장의 환영 인사 및 직원 소개에 이어 의원 상호간 상경례, 시의회 일반현황, 개원 계획, 임시회 일정 등 하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당선 의원들은 의원 임기 시작 전 등록서류에 대한 안내와 함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 겸직금지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한 당선자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의 첫 걸음인 오늘 설명회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8대 김제시의회의는 오는 7월 2일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정단을 선출한 후 7월 3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